

1. 바벨론왕 벨사살 시대였습니다. 왕은 연회를 베풀었고, 1천 명의 손님들이 참석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손님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금 기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2. 그 놀라운 광경에 모두가 기절할 법도 했지만, 역시 왕은 왕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바벨론의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의 해석을 시도했지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했던지, 그걸 해석하는 자에게는 나라의 셋째 치리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뿐 아니지요. 자주옷과 금사슬까지….
3. 여기서 참으로 이상한 것은, 왕의 지혜자가 모두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지요. CIA나 FBI가 어느 나라 말이든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로 된 글자를 읽지도 못한 것이지요.
4.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서 “메네, 메네”라는 건, “므나”라는 동전을 의미합니다. 공공로게도 벨사살 왕이 술 마시기 위해 가져온 성전의 “기명”을 부르는 말도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네, 메네”라고 두번 말한 것은, 므나 한 개, 므나 두 개, 또는 기명 한 개, 기명 두 개… 이렇게 세었다는 뜻입니다.
5. 그리고 “데겔”은 돈의 단위인 “세겔”의 사투리 발음이지요. 므나와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비교하자면 오늘날 “유로”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우바르신”은, “그래서 베레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베레스는 세겔의 반이니까, 50센트지요. 그래서 “세겔 우바르신”은 한 세겔이 두 페레스, 1유로가 50센트 동전 2개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6. 이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해석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의 박사들은 그것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의 파장을 두려워 했을 테지요. 왕은 살해되고, 제국은 멸망하고, 결국은 둘로 나뉘어져 바사와 메대로 사라져 버린다는데, 그런 말은, 해도 죽고 안해도 죽는 것입니다.
7. 그 다음 이들은, 이참에 다니엘의 목에 방울을 달자는 것이지요. 11절, 그는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해석을 그 어른에게 맡기자는 말이지요.
8. 느부갓네살 왕 때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오늘 벨사살 왕처럼, 번민했지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말해 달라는 박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단 2:5)”
9. 벨사살은 바로 이런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그 아비의 그 자식이겠지요? 그러니까, 꿈을 꾸거나 혹, 어떤 신비한 계시가 있을 때, 그것을 해석해서 진리를 밝힌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10. 16절,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드리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11. 여기서 말은 안했지만, 만일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말했던 대로,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다니엘과 그 가족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금사슬을 보여주고 있지만, 뒤로는 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교회가 목사에게 설교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때, 설교를 잘하면 나라의 셋째 치리자와 자주옷과 금사슬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이지요. 사탄은 그걸 목사에게 시켜 놓고, 자기 대신 죽으라고 떠미는 것입니다.
13. 다니엘에 따르면, 벨사살 왕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5장 23절 끝머리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 했다”는 것이지요. 벨사살 왕이 무슨 엉뚱한 일을 했다가 보다, 그가 마땅한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14. 이것은, 벨사살 왕이 여호와와 기명들로 술을 마셨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술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15. 22절,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겸손해야 할 자가 본분을 버리고, 술기운을 빌어서 하나님을 도발했다는 것이지요. 그 금 기명을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은 지, 취한 척 실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16. 그는 알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나타난대로, 그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고,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 시험해 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명 1천 개에다가 술을 부어 보았지요.
17. 아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자기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지를 시험한 것이지요. 선악과를 베어 물었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주권자라는 선언입니다. 마찬가지로 벨사살,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신다? 자기가 곧 그 기명의 주인,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18. 다니엘이 말한 대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려고 자기 아버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쫓아내서, 그 마음이 들짐승과 같게 만드시고, 들나귀와 함께 소처럼 풀을 먹게 하시고,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도록 하셨지요.
19. 그걸 잘 아는 벨사살이 이제와서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바로 왕이라는 선포입니다. 자기가 바로 부자, 곧 이 기명의 주인이고, 자기가 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스러움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로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도발한 것입니다.

20. 누가복음 12장에 가시면 13절에 어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그 유산을 나누도록 조치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요청에서 발뺌을 하십니다.
21.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눅 12:14)” 이요청과 대답이 무엇과 똑같냐면,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않으려는 벨사살 왕의 연회장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어느 부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22. 어떤 부자입니까? 풍성한 소출을 거둔 부자입니다. 벨사살 왕과 같지요? 그가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 나라를 약탈해서 자기들의 창고를 여호와의 전의 기명(므나)들로 가득 채워 놓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23.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벨사살 왕처럼, 1천명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 했다는 말씀은,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금 기명으로 술을 마셔도 관참을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고, 또, 나는 부자이고, 또 내가 진짜 왕이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24. 그런 착각과 하나님에 대한 도발을, 예수께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5.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것? 하늘에 공로를 쌓는 것? 벨사살처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6.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비록 자기가 소처럼 풀을 먹거나 들판에서 이슬에 젖는 처지가 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지요.
27.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부요란,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줄 알고, 또 그가 자기가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자유로우신 분인 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잡힌 자 됨을 믿는 것입니다.
28. 그 기명이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어떤 예식이나 예배의 도구라고 친다면, 그 예배나, 또는 교회의 어떤 행사나 활동, 그리고 그 예배의 준비자들을,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자기의 부유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지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